

能動的 人間의 探究(4)

哲學과 文學의 接觸面

金午星

뜰압해 培養하는 樹木은 人間에 依한 自然의 發展인 同時에 人間 自己의 發展 創造도 되는 것이다. 웨-그러나하면 人間에 依하여 發展된 樹木은 다시 人間에게 어떤 有用的인 價値를 줌으로써 이다. 그러므로 客觀世界的 發展은 人間 中心의 發展이라고도 할 수 있다.

人間을 主體로서 보면 人間の 注意와 精力이 미친 範圍의 現實世界는 人間의 世界 또는 人間化의 世界라 할 수 있다. 웨-그러나하면 우리가 問題삼는 範圍의 客觀的 存在는 혹은 人間の 實踐에 依하여 變化 또는 創造된 것이며 혹은 人間の 言語 또는 概念에 依하여 人間的인 意味가 賦與된 것임으로써 이다. 歷史的 社會가 人間的인 世界임은 두말할 것도 업고 天上의 星辰이나 地下의 微物까지 人間은 自己의 精力이 미친 限에서 거기에 어떤 人間的인 意味(그 名稱 그것의 人間 生存에 미치는 意義 등)를 賦與함으로써 人間의 世界 또는 人間化의 世界를 만들고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の 實踐, 認識, 創造 등은 客觀世界를 人間化시키는 主體的인 行爲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우리는 主體性を 主觀性이나 또는 形而上學的인 『存在의 根據』 등으로 解釋해서는 안된다. 人間은 主體인 同時에 또한 客觀世界的 一部分이다. 아니 主體이기 前에 먼저 客觀的 存在이다. 말하자면 存在論的이기 前에 먼저 存在的인 것이다. 人間은 첫재 身體를 가졌으며 身體的 感性的인 生存이 第一義的인 點에서 客體的 存在이다. 웨-그러나하면 人間の 身體가 아무리 神秘的 精神을 담고 잇다 하더라도 一類人이나 全人類의 肉體的 生存을 한 個의 自然史的 過程에서 본다면 달은 모든 客觀的 存在와 區別 할 것이 업는 自然現象의 하나에 不過한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人間은 客觀에 依存치 안코는 生存 할 수 업는 點에서 自己의 母體인 客觀世界的 支配와 制約을 免할 수는 겁는 것이다. 人間만이 客觀的 存在를 征服하는 것이 아니라 客觀世界도 人間에게 強迫하는 것이다. 더욱이 人間 自己가 지여 노흔 物件

도 그것이 社會的이란 客觀的 條件을 가지게 될 때에 人間은 그것에 支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人間の 主體性을 無視하는 絶對 條件은 못된다. 웨!그러나하면 人間은 客體의 一部이면서 달은 客體와 對立하며 客觀世界의 支配와 制約을 받으면서도 그것과 抗爭하여 그것을 克服하며 變化시켜서 人間 自己의 生存에 適應시키는데 主體的 機能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人間은 단순히 主體인 同時에 客體일 뿐 아니라 한 거름 나아가서 主體와 客體의 對立的 辨證法的 統一體임을 忘却해서는 안될 것이다.